

# 전주시, 한국학의 세계화를 열다

## ‘세계한국학 전주비엔날레’ 오늘부터 5일간 전주시 일원서 펼쳐져

한류의 세계화에 발맞춰 한국학 연구의 네트워크 구축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 전주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세계 한국학 전주비엔날레’가 오늘부터 5일까지 전북대학교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주 세계 한국학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이배용 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도널드 베이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등 한국학 분야의 국내·외 석학 100여 명이 참석해 법학문적 접근을 통한 한국학의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특히 기조강연자로 나서는 이배용 전 원장과 도널드 베이커 교수는 각각 ‘한국 문화유산의 세계화’와 ‘세계화와 한국의 과거·현재와 미래: 한국 역사 서술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세계 한국학의 소통과 확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포문을 열 계획이다.

첫날인 1일에는 전주 리노호텔에서 열리는 문화공연을 통해 주한 에라도르 대사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과 국내외 기자 주요 내빈들과 국내외의 한국학 연구자들을 맞이한다. 한국을 알리는 전통 음악 연주회에서는 대금, 장구, 소리가 어우러진 문화 축제가 펼쳐진다.

2일과 3일에는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국제 학술 포럼 및 좌담회가 진행된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덕성여자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도봉구 덕성여자대학교 민주광장에서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20개국 한국학 연구자들이 참석해 언어·문화·역사·철학·정치·경제·글로벌 시대의 한국학 등 4개 분과로 세분화된 학문적 성과를 심도 있게 진단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한국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진학자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도 기회를 확대, 한국학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른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이번 비엔날레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사상경례와 향음주례, 향사례 등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의 전통 공예품 및 약식 만들기 체험, 송광사와 금산사에서의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한국학 연구의 흐름을 주도하는 국내·외 연구자와 한국학 연구 석학들이 한류의 세계화를 함께 모색하고, 한국학의 중심도시인 전주를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와 전북대학교는 지난해 프레데리코를 통해 ‘세계 한국학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국학 연구 성과를 진단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세계 한국학 전주 비엔날레는 지난해 프레데리코와 올해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년마다 전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영재기자

# 국·내외 공동체 활동가들, 전주에 모인다

## 전주시, 현대 사회변화 대안 '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

국내·외 공동체 활동가들이 공동체 역량과 자립기반을 키우기 위해 전주에 몰려온다.

전주시는 11월 1일과 2일 이틀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현대 사회변화의 대안으로 떠오른 공동체에 대한 정책 방향과 경험 공유를 위한 '2016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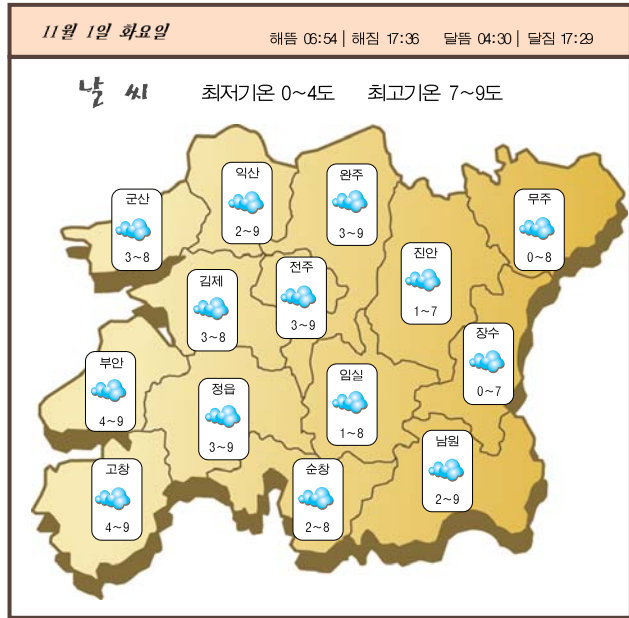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한마당 행사는 지난해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공동체 행사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동체 관련 국내외 정책과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들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체 한마당 행사에서는 첫날 개회식과 기조연설, 공동체 활성화 국제포럼, 지역공동체 현장전문가 사례발표 등이 진행되며, 2일차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주제 정책토론과 행복한 공동체 발표 한마당,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날 기조연설에서는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왕성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동체의 의미와 효과를 되새기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국제포럼에서는 공동체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로 손꼽히는 호소우치 노부타카 일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종합연구소 대표와 마이클 루이스 캐나다 지역공동체회복센터 이사가 참여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공동체한마당 행사에서는 전주시와 대구시, 서울 성북구 등 전국 각지의 공동체 현장전문가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공동체 현장전문가 사례 발표'도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시는 민선6기 시정목표인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모토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전주형 공동체사업과 거버넌스 구축 과정, 주민 의견수

렴 및 갈등 해소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2일에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과 우수공동체 전시관을 통해 각 시도별 예선을 통과한 17개 팀의 우수사례가 소개되는 '행복한 공동체 발표 한마당', 전북지역 대학생 참여프로그램인 '대학생 아이디어 콘테스트' 등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염원과 화합'을 주제로 한 비법 밥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세계인류무형유산인 필봉농악 풍물 판국 공연과 전주시립국악단의 판소리·국악 공연 시·도별 공동체 우수사례 홍보 전시, 전주시 등 전북지역 공동체 전시 체험관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김영재기자



## 전북대 강정석 교수 한국감성과학회 신진과학자상 수상



전북대학교 강정석 교수(사학대 심리학과)가 한국감성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진과학자상을 수상했다. 신진과학자상은 한국감성과학회가 연구와 교육 분야에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연구자를 선정, 격려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소비자·광고 심리 전문가인 강 교수는 지난해 전북대 교수로 임용돼 관련 분야 연구에 두각을 나타냈고, 학부생들의 논문 발표를 지도하는

등 신진 연구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강 교수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신진과학자상 수상자 강연에 연사로 참여해 광고효과와 연구에서의 온라인 실험연구방법 적용: 무명광고 모델의 신체적 매력과 시선효과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강 교수는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미국 코네티컷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심리학회지 국내의 학술지 심사위원과 한국홍보학보 편집위원을 지내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민형기자

## 원광대, 신개념 의료기기 원천기술 개발사업 선정

원광대는 미래부에서 주관하는 '의료기관 창업캠퍼스 연계 신개념 의료기기 원천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됐다. 지난해 31일 밝혔다. 연간 10억 원씩 5년간 총 50억 원을 지원받는 이 사업은 원광대병원 이 벤처를 위한 공간·장비를 구축하고, 의료현장 수요를 반영한 의료기기를 개발해 신속하게 사업화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원광대는 (주)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주회사의 자회사로 (주)코브라메드(가칭)를 설립하고, 이 기업을 통해 뇌척추질환 전용 수술용 CT광학융합 시스템을 개발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수술용 CT광학융합 시스템은 수술장에서 CT영상과 네비게이션 기능을 융합해 영상유도 하에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첨단 신기술로서 세계시장 규모가 2014년 21억 달러로 추정되며,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고 있다. 총괄책임자인 원광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윤권희교수는 "미래 의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광대병원의 연구기반과 의료산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기술주회사는 전북대(제)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 전주시, 전북은행 등 8개 기관의 공동출자를 통해 설립된 투자기업이다.

/고민형기자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